

< 문학에서의 선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근거'란 어떻게 보는것인가? >

문학에서 모든 선지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실적 부분과 해석적 부분.

사실적 부분이란,

선지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부분' 이구요.

해석적 부분이란,

선지에서 시어, 시구 등에 대한 이해, 해석, 감상 등을 서술해놓은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에, 문학의 진리이자 꽃인 '개연성 있는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다면
당신이 바로 **문.잘.알** 이 되는겁니다.

개연성 있는 해석이라는 것은 사실적 부분과 해석적 부분에서 모두 이용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먼저 개연성 있는 해석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연성 있는 해석이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 될 수도 있겠군' 하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남주가 여주를 좋아하는 것까진 아니라고 생
각이 들 수 있지만, 몇몇 근거에 따르면 좋아한다고 봐줄 수도 있구나. 하는거죠.

결국 문학에서 이루어지는 이해, 해석, 감상은 '이렇게 보이냐?' 가 아니라

'이렇게 봐줄 수 있겠냐?' 가 되는거고, 이 점이 바로 문학 감상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겁니다.

그럼, 개연성 있는 해석과 그렇지 못한 해석을 구분해주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선지에서의 해석이 전체적인 흐름과 부합하는가?
2. 선지에서의 해석이 앞뒤 맥락과 부합하는가?
3. 선지에서의 해석을 허용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해석이 개연성 있다고 허용해줄 수 있는 해석이 되는것이고,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허용해줄 수 없는 해석이 되는겁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61p에 있는 이육사 시인의 「절정」 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이육사 - 「절정」

먼저 시에 대한 해석을 도와드리자면, 시에 나타난 대상이 없으므로 '화자'를 중심으로 보면 되고, 현재 화자가 처한 상황은 채찍 맞아 북방으로 휩쓸려왔고, 무릎을 꿇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떠한 내적갈등을 겪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넘나 충분합니다.

<선지>

① '칼날진 그 위에 서다'는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과 이로 인한 화자의 현실 도피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이 선지에서 이루어진 해석은 두 부분으로 나눠 봐줄 수 있죠?

< '칼날진 그 위에 서다'는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낸다. >

시의 전체적인 흐름과, 앞뒤 맥락상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해석이 드러나도 괜찮죠?

무언가 외력에 의해 쫓겨진 부정적인 상황이니깐요.

그리고 '칼날진 그 위' 라는 뉘앙스가 '위태로운 상황' 이라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거 아시겠나요? 둘이 어느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깐요!

이렇게, '칼날진 그 위에 서다'는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낸다. 의 판단이 끝났습니다.

다음 부분은

< '칼날진 그 위에 서다'는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으로 인한 화자의 현실 도피적 태도를 드러낸다. >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 먼저 한번 스스로 근거를 생각해 보세요.

| 보기 |

아비가 받았던 아이를 구덩이 둔덕에 털썩 놓아 버린다.
비는 한결같다. 산골짜기에는 물소리뿐 아니라, 개구리, 땡꽂이 그리고도 무슨 날짐승 소리 같은 것도 난다.
아이는 세 번째 들여다볼 적에는 틀림없이 죽은 것 같았다. 다시 구덩이 바닥에 물을 쳐내었다. 가마니를 한끝을 깔고 아이를 놓고 남은 한끝으로 덮고 흙을 덮었다.
황 서방은 아이를 묻고,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리고 찢름거리며 권 서방의 뒤를 따라 한길로 내려왔다.
아직 하늘은 트이려 하지 않는다.
“섰음 뭘 허나?”
황 서방은 아이 무덤 쪽을 쳐다보고 멍청히 섰다.
“돌아서세, 어서.”
“예가 어디쯤이지.”
“그까짓 건…… 고무신 한 짝이 아깝네만…….”
“…….”
“가세 어서.”
황 서방은 아이 무덤 쪽에서 돌아서기는 했으나 권 서방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권 서방이 쫓아와 붙든다.

- 이태준, 「밤길」

③ <보기>는 ‘찢름거리며 걷는 길’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군.

틀린 선지입니다.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상황을 보면 황 서방이 죽은 아이를 묻고 가는 상황인데, 이것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판단하기 조금 애매모호한 감이 있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찢름거리며 걷는 길’이 과연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해석의 근거가 되나요?

그냥 걷는 길입니다. 괜한 의미 부여 하시면 안돼요!

지문에서 ‘찢름거리며 걷는 길’과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이 한톨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냉정하게 따져야하고, 기출을 통해 충분히 연습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엔 뜬 구름 잡는 것 같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기출이라는 기준에 자신의 사고의 틀을 차근차근 끼워맞춰 본다면, 어느새 문학실력이 쑥쑥 늘은 독자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럼 개연성 있는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적 부분과 해석적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해드리면

사실적 부분이란,

선지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읽기만하면 '잉? 뭔소리지?' 싶으실까봐..!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둘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C]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D]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E]

조지훈 - 「승무」 일부 발췌.

<선지>

④ [D]는 [C], [E]와 달리, 춤사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세속적 번뇌에 대한 종교적 승화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부분' 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춤사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입니다!

지문을 보시면 오히려 [C], [E]가 [D]에 비해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선지에서는 거짓말해놓고 거짓말 안한 척 하고있죠?

사실적 판단은 사실적 부분에 대해 참/거짓을 따져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이는 시보다는 특히 소설에서, 그리고 문학&비문학 융합지문에서 킬링파트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15수능 [무영탑] 이 있죠. (B형 기준 오답률 58.8%)

⑤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밑줄 친 부분이 사실적 부분이 되구요, 저 부분을 놓쳐 틀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또 사실적 판단에서도 개연성 있는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켈레꽃으로 피워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17년시행 고3 교육청 4월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ㅎㅎ

<선지>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B] 어디에도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란 말을 찾아 볼 수 없죠??!

하지만, [B]의 앞뒤 맥락을 살피면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것 이라는 표현에서 -->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 이라는 진술을 사실로 봐줄 수 있겠죠?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너럭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갈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A]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선지>

① 1연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보면, ㉠은 굳건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뜻하겠군.

이 문제는 제가 문학 잘 못할 때 매우 저를 화나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_/_/

당시 제가 했던 생각은

'아니 @발 갈대가 뿌리를 내렸는지 안내렸는지 어떻게야는데!!!!!!!!!!!!!!!!!!!!!!!!!!!!!!' 였습니다.

민망하네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상 갈대가 흔들리고 있으니 뿌리를 내렸겠군~ 이라고 추론 해볼 수 있
죠?

물론 저처럼 '갈대가 뿌리 다 뽑히고 줄기만 꽃혀서 흔들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구요.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선지에서의 진술도 '허용해줄 수 있겠군!' 하는게 바로 개연성 있는 해석입니다!

제가 국어 문학 인강은 개념의 나비효과밖에 안들어봐서 다른분들이 사실적 판단을 강조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제가 짧은 기간 내에 꽤나 폭발적으로 성적을 올리면서 문학의 선지를 이루는 요소 중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술해 보았습니다. ():-) (머리스타일 ㅍㅍㄷ?)

다음은 해석적 판단입니다.

해석적 판단은 사실 개연성 있는 해석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로 다시 한번 개연성 있는 해석의 구분 방법을 복기해봅시다.

1. 선지에서의 해석이 전체적인 흐름과 부합하는가?
2. 선지에서의 해석이 앞뒤 맥락과 부합하는가?
3. 선지에서의 해석을 허용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조금 눈치보이니까 ㅎ 예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 동지(冬至)스들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나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들져귀 수들져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쫓닥 바가 이내 가
슴에 창(窓) 내고자
있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7001-0075

02 (가)와 (나)의 시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지스들 지나긴 밤'은 임이 부재하는 상황으로,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다.
- ② '한 허리를 버혀 내어'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인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임이 오신 밤에 임과 함께할 시간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③ '춘풍 니불'은 화자가 임에게 보내려고 새롭게 만드는 물건으로,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
- ④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화자가 답답함을 견디기 힘든 지경임을 알 수 있다.
- ⑤ '여다져 불가 흐노라'는 화자가 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린 것으로, '창'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1번선지

< '동짓달 기나긴 밤' 은 임이 부재하는 상황으로>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전체적인 흐름 상 너무 너무 허용해줄 수 있겠네요!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다.>

전체적인 흐름, 내용흐름 상으로도 적합하고, '임이 부재하는 상황'을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의 해석의 근거로 봐주기도 너무 적합하죠? 고로 옳은 선지.

2번선지

< '한 허리를 버혀 내어' 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인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한 허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버혀 내어'를 통해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했다고 봐줄 수 있네요.

<임이 오신 밤에 임과 함께할 시간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시의 전체적인 흐름과 앞뒤 내용을 읽어보시면, 기나긴 밤을 쟁겨 났다 임이 오시면 구뽀구뽀 피겠다~ 하고있죠? 전체적인 흐름, 해석의 근거 모두모두 너무 적합합니다.

3번선지

< '춘풍 니불' 은 화자가 임에게 보내려고 새롭게 만드는 물건으로, >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시 어디에도 '춘풍 니불' 이 화자가 임에게 보내려고 새롭게 만드는 물건이라는 말도 없을뿐 더러 그렇게 해석할만한 근거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선지는 틀렸고, 정답이 됩니다.

또한 뒤에 따라나오는 해석적 판단 또한 틀렸는데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4번선지

<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

사실적 판단입니다. 머리 굴릴 필요도 없이 맞습니다.

<화자가 답답함을 견디기 힘든 지경임을 알 수 있다.>

시를 읽어보시면, 답답할 때마다 열어보려고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한다고 말하고있죠?

전체적인 흐름상 '화자가 답답함을 견디기 힘든 지경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허용해줄 수 있겠네요.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 답답함을 견디기 힘들 이라는 해석의 근거도 적합합니다

5번선지

< '여다져 볼가 하노라'는 화자가 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린 것으로,>
마찬가지로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답답할 때마다 여다져 볼가 하노라. 라는 표현으로 보면 해석의 근거도 적합하고,
내용 흐름상으로도 적합합니다.

< '창'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

(창을) 여다져 볼가 하노라. 고로 창 의 기능과 관련 있죠? ○○

이렇게 해석적 판단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게 몇 가지 있는데,

문학에서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는, <보기>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근거로 사용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똑같아집니다!

문학에서 <보기> 가 가지는 지위는 엄청납니다. <보기> 문제 보실때마다 명심하세요.

비문학+문학 융합지문 같은 경우는, 그저 비문학을 대왕 보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융합지문같은 경우는, 사실적 판단을 오답의 포인트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적 부분에 대해 판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길!

쓰기가 애매해서 대부분 시를 중심으로 예시들고, 설명해보았지만

소설에서도 물론! 모두 다 통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적 판단과 해석적 판단으로 문학작품에서 특정 부분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모두 해결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의 절대적인 기본은 '개연성 있는 해석' 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평가원 기출을
풀며 스스로 익히시는게 정말정말정말정말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김명 올림